



[해설]
기간산업지원
숨넘어가는
LCC는 배제
03



Economy

코스피 1998.31 (+8.67)	코스닥 716.02 (+7.26)
금리 (미국 3년) 0.856 (-0.012)	환율 (원/달러) 1230.90 (+0.60) (21일)

“산업·고용 위기 상생, 협력 절실”

나라빛·가계빛 급증... 건전성 ‘빨간불’

文 대통령, 주요 산업계 간담회

경쟁력 확보, 일자리 등 총력
‘한국판 뉴딜’ 정책 신속 추진
정부차원 미래인재 양성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한국 경제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노력뿐 아니라 주요 산업의 대표 기업과 만나 산업 위기 극복과 고용 안정을 위한 지혜와 의지도 모으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주요 산업계 간담회’를 찾아 “경제 회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 안정망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정부 차원의 미래 기술 인재 양성 의지를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도 지킬 방안으로 꼽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시대는 더 과감하고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변화를 기회로 삼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때 기업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기술 인재 양성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미래 차, 드론, 지능형 로봇, 스마트 선박, 바이오 의약 등 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세계적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공동연구 참여를 지원하고 연구 역량을 키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산업과 일자리 모두 위기 상황”이라며 “정부와 경제계 간의 협력은 물론 업종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노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자리를 지키고 우리 산업과 경제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정부, 국민이 모두 합심하면 코로나로 유발된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강자로 거듭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3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3차 추경에 국가채무 50% 우려 1분기 가계빛 1610조원 돌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나라빛, 가계빛이 동시에 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키로 하면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가계빛이 1610조원을 돌파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국가채무, 800조원 넘어설 듯

21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많은 81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이었지만 1차 추경으로 815조5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으로 819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전망치인 805조5000억원을 13조5000억원 초과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2021년 887조6000억원, 2022년 970조6000억원, 2023년 1061조3000억원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확정 채무를 의미한다.

최근 들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2000년(111조원) 100조원 ▲2004년(204조원) 200조원 ▲2008년(309조원) 300조원 ▲2011년(421조원) 400조원 ▲2014년(533조원) 500조원 ▲2016년(627조원) 600조원 ▲2019년(729조원) 700조원을

차례로 넘어섰다.

◆ 국가채무 비율 50% 육박 전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4.4%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포함해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1914조원)와 같은 수준일 것으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한 국가의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로 꼽힌다. 국가채무 비율도 정부가 예상한 수준을 넘어섰다.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앞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전망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충격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5면에 계속)

/김희주 기자 hj9@



국제유가, 5거래일 연속 상승

20일(현지시간) 미 캔자스주 오클리 남쪽 들뜬에서 작동 중 오일 펌프 잭이 석양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규제로 수요가 줄어 수십 년 만에 최저 유가를 이어가던 국제 유가가 최근 반등하고 있다. /뉴스1

저소득층 소비지출 ‘역대 최저’

코로나여파 전년보다 4.9%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분기 가계지출이 역대 최대로 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오락·외식 등 소비가 크게 줄었다. 소득 상위 20% 가구 소득이 크게 늘면서 가계의 소득 격차는 커졌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계지출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지출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은 394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9%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은 245만7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6.0% 줄었다. 비소비지출도 106만7000원으로

1.7% 줄었다. 항목별로 보면 코로나19 여파에 ▲의류·신발(-28.0%) ▲교육(-26.3%) ▲오락·문화(-25.6%) 등에 대한 소비가 급격히 줄었다. 반면 식품·비주류음료(10.5%), 보건(9.9%) 등은 증가했다.

저소득층 가구가 특히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은 늘지 않고 지출은 더 많이 줄었다. 1분위 가구 소득은 월평균 149만8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변화가 없었다.

2분위(0.7%), 3분위(1.5%), 4분위(3.7%), 5분위(6.3%) 소득이 모두 증가한 반면 1분위만 제자리걸음을 한 것이다. 1분위 가계지출은 175만1천원으로 1년 전보다 10.8% 줄었다. 이는 통계청이 2003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폭 감소다. /이현진 기자 hj@

코스피 한 때 2000선... ‘대세론’ 보다 ‘신중론’

경제회복 기대감에 증시 훈풍
미중 분쟁 우려에 ‘신중’ 조언

한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로나 이전 주가 수준을 회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높아진 게 투자심리를 움직였다. 다만 향후 경기애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고,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코스피지수는 21일 전날보다 8.67포인트(0.44%) 상승한 1998.31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3.56포인트(0.68%) 오른 2003.20으로 출발해 개장과 동시에 2000선을 돌파했다.

장중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코스피지수가 전 거래일(1989.64)보다 13.56포인트(0.68%) 오른 2003.20에 출발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6일(장중 고가 2062.57) 이후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다만 장 후반 들어서는 기관 중심의 매도물량이 확대되면서 2000선 턱 밑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추세 속에서 경제 또한 정상화될 것이라

기대감이 주가에 힘을 불어넣었다.

코스닥의 회복세는 더 가파르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7.26포인트(1.02%) 오른 716.02로 종료했다. 전날 11개월 만에 700선을 돌파한 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해 지수는 오히려 7.0% 올랐다.

코로나 사태 여파로 지난 3월 19일 428.35포인트까지 빠졌던 것을 감안하면 두 달여 만에 67.1% 넘게 상승한 셈이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지수가 700선을 돌파한 건 작년 6월 26일(709.37) 이후 처음이다.

최근 코스닥 상승세는 제약·바이오 등 코로나 사태의 수혜 업종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스닥시장에서 연초 이후 제약업종은 18.23% 상승했고, 소프트웨어(+11.07%) 등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손범기 기자 sonumji301@